

이상기후에도 KIA 마무리 캠프 '이상無'

스콜에 태풍도 예보... 실내연습장 새로 생겨 훈련 가능
전 일본프로야구 선수 초청 '수비 약점 지우기' 구슬땀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호랑이 군단’의 마무리캠프가 뜻하지 않은 날씨 변수를 맞았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4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 캠프를 꾸리고 올 시즌을 돌아보고 내년 시즌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 우승의 여운을 이어 선수단은 뜨거운 분위기에서 마무리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KIA의 약점을 지우기 위해 초청한 특별 손님도 있다.
‘수비’를 우선 과제로 설정한 KIA는 올 시즌까지 일본프로야구(NPB)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미츠마타 타이키를 수비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
KIA는 오전 훈련 시간 많은 부분을 수비 훈련에 할애하면서 부지런히 기초를 다지고 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수들 위주로 캠프가 꾸려지면서 킨 구장에는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지난 여름 폭염을 몰고 왔던 이상 기후가 마무리캠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키나와의 11월 한낮 기온은 25도를 넘으면서 우리나라의 초여름 날씨와 비슷하다. 비도 많이 오지 않아 훈련하기에 좋은 날씨지만 이번 캠프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해가 났다가도 스콜성으로 비가 쏟아지기도 한다. 지난 8일에는 이슬비가 계속되면서 그라운드 훈련을 하지 못했다.
날씨가 캠프의 주요 변수가 되면서 코칭스태프가 노심초사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있다. 설상가상 11월에 태풍을 만나게 됐다.
11월에 사상 처음으로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고, 이 중 제25호 우사키는 오키나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14일에는 오키나와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15일부터 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훈련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기술훈련에 속도를 내면서 실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상치 못한 날씨를 만난 KIA.
그나마 다행인 점은 킨에도 실내연습장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킨 구장에 최신식 실내연습장이 들어서면서 비가 오거나 해가 쳐도 훈련이 가능하다. 또 비와 더위도 막지 못하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열정’도 있다.
변우혁은 14일 훈련이 끝난 뒤 “비도 오고 흐리다가 해가 뜨면 많이 덥다. 이번 캠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날씨도 습한 편이다. 오늘은 많이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마무리캠프 선수단 뒤로 실내 연습장이 보인다. <KIA 타이거즈 제공>

더워서 훈련하기 힘들었다. 훈련량도 많은 편이라서 선수들이 지쳐있는 것 같은데, 코칭스태프가 회복하는 데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 계신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선수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며 “어린 선수를 위주로 밝은 분위기에서 캠프가 진행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태풍이 별 영향 없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 KIA는 ‘부상’도 피해 가야 한다.
이번 캠프의 최고참이었던 내야수 황대인이 팔꿈치 통증으로 조기 귀국했다.

반전의 시즌을 위해 이를 악물고 이번 캠프에 나선 황대인은 팔꿈치 통증으로 지난 12일 귀국해 병원 검진을 받았다. 황대인은 검진 결과 상완삼두근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3주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다. /wool@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가 지난 1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첫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에 세트스코어 0-3으로 져 패했다. 박정아(왼쪽)가 강하게 공을 내리꽂고 있다. <KOVO 제공>

페퍼스, 2게임 연속 한 세트도 못 따고...

현대건설에 0-3으로 져 6연패
박정아 팀내 최다 13득점 ‘분투’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가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페퍼스는 지난 1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첫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에 세트스코어 0-3(18-25 19-25 14-25)으로 져야 하며 6연패를 기록했다.
이날 박정아는 31.43%의 공격 성공률과 2개의 블로킹으로 팀 내 최다 13득점을 따냈지만 팀 승리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정아는 최근 두 경기인 IBK전(4득점·14.29%)과 현대건설전(9득점·공격 성공률 23.68%)에 비해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범실관리 등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일 IBK와의 경기부터 투입된 새 외국인 선수 테일러 프리카노는 10득점(공격 성공률 30.3%)을 올렸지만 ‘외국인 한방’을 기대하기엔 아직 적응이 필요한 모습이었다.
이날 경기에는 4번의 무릎 수술로 긴 재활기를 보내던 염여름이 모습을 드러냈다.
1세트 하체진이 빠진 자리에 투입된 여름은 신장 194cm의 높이를 살린 강하고 빠른 공으로 1득점을 올렸고, 유효블락 2개를 만들어내는 등 팀에 힘

을 보냈다.
1세트 첫 득점을 올린 건 박정아였다. 테일러의 스파이크, 장위의 속공-이동 공격에도 현대건설의 탄탄한 블로킹과 안정적인 리시브에 점수 차가 벌어졌다.
18-24 상황, 염여름의 오픈이 라인 밖으로 벗어나며 현대건설이 가볍게 1세트를 가져갔다.
2점을 내주고 시작한 2세트에서 테일러의 오픈 득점으로 첫 역전에 성공했지만 페퍼스의 범실이 이어지는 사이 외국인 선수 모마를 앞세운 현대건설은 격차를 벌려 달아났다. 위축된 페퍼스, 2세트에서만 9개의 범실을 쏟아내며 자멸했다.
박정아가 3세트에서도 선취 득점을 올리며 분위기를 가져오려 했지만 현대건설은 6연속 득점으로 페퍼스의 득점 기회를 막아냈다.
3세트 후반 현대건설은 주전 모마와 이다현이 벤치에 자리했음에도 베테랑 양효진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양효진(16득점·공격 성공률 58.82%)·모마(15득점·35.14%)·정지훈(12득점·45.83%) 삼각 편대의 고른 활약으로 큰 힘들이지 않고 페퍼스를 11점차로 가볍게 누르며 승리를 가져갔다.
페퍼스는 팀 공격 성공률은 30.36%로 지난 경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현대건설은 44.23%를 달성했다. 팀 리시브 효율 역시 31.88%에 그친 페퍼스에 비해 상대는 44.44%로 월등히 앞섰다.
현대건설은 혼자 6개를 막아낸 양효진을 앞세워

블로킹 득점 역시 10-4로 앞섰다.
개막전 승리 이후 내리 6연패를 기록한 페퍼스는 정규리그 여자부 5위(1승 6패·승점 4) 자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다.
경기를 마친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지 못해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간 것 같다. 경기가 너무 안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서브 공략의 주 타겟이었던 정지훈이 너무 잘 버텨서 효과적인 서브 공략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경기를 치른 테일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테일러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 자신의 기량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여름은 재활을 오래해 실전 감각이 필요했다”며 “‘교체선수라도 뛰게 해야겠다’고 생각해 기용했고, 실전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길텐데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 감독은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연습경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훈련하는 중 호흡을 잘 맞춰야 하고, 실전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길텐데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페퍼스는 오는 17일 오후 4시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손흥민,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

유럽 이적시장 소식통들 밝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가 손흥민(사진)과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추가 동행’을 결정, 구체적인 계약 연장 절차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현재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계약 조항을 발동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최소한 (기존 계약보다) 한 시즌 더 토트넘과 동행한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7월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4년 계약을 맺은 양측의 동행은 2025년에 끝난다.
다만 토트넘이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은 당장 손흥민과 새 계약을 맺기보다는 기존 옵션을 발동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두 번째 경기를 치른 테일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테일러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 자신의 기량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여름은 재활을 오래해 실전 감각이 필요했다”며 “‘교체선수라도 뛰게 해야겠다’고 생각해 기용했고, 실전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길텐데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 감독은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연습경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훈련하는 중 호흡을 잘 맞춰야 하고, 실전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길텐데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페퍼스는 오는 17일 오후 4시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을 쏟았지만, 토트넘은 침묵을 지켜왔다.
2023-2024시즌 도중 일부 현지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다는 관측을 꾸준히 꺼냈지만 결국 구단의 선택이 1년 계약 연장 옵션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32살에 접어든 가운데 에이징 커브를 고려해야 하는 토트넘에 부담스러운 장기 재계약보다 옵션 행사로 현실적 선택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새 계약 체결 시 팀 내 최고 수준의 손흥민의 주급도 인상될 여지가 크다.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연봉 분석 매체인 스포트랙에 따르면 손흥민은 주급으로 19만파운드(3억 3000만원)를 받는다. 팀 내 1위다.
이렇게 되면 구단으로서도 다음 계약 기간 중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손흥민에게 거액을 써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1년 연장 옵션을 쓴다면 2026년까지 동행이 보장된 데다 새 계약을 맺을 때보다 주급 변동 폭을 통제할 수 있어 구단에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양중양초·광양여고 여자축구 준우승

추계연맹전 초등부·고등부

광양 축구여제들이 추계연맹전에서 동반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중양초 여자축구부와 광양여고 축구부는 지난 13일 막내린 ‘2024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각각 초등부·고등부 2위에 올랐다.
지난 3일부터 11일간 포항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대학 여자축구팀 49팀이 참가해 우승컵을 두고 격돌했다.
광양중양초(감독 손백기)는 초등부 4강에서 우이초를 3-1로 꺾고 결승에 올랐지만 ‘지난 대회 우승팀’ 남강초에 1-3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광양중양초는 전반 14분과 16분, 진주남강초 배수빈과 이지우에 순식간에 2골을 내렸다. 후반 30분에는 상대 이진서가 길게 슈팅한 공이 원반운드 후 골문을 통과하면서 0-3이 됐다.

이후 코너킥 상황에서 광양중양초 신경은이 코너킥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광양여고(감독 권영인)는 고등부 4강에서 울산 현대고에 3-2승을 거둔 뒤, 추계대회 5연패에 도전한 포항여자전자고에 1-3으로 2위에 자리했다.
전반 9분 주장 조혜영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지만 27분 포항여전고 김예지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부는 원점이 됐다.
광양여고는 후반 17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상대 이하은에게 역전골을 내렸고, 34분 이하은에게 추가골을 내렸다.
한편 조혜영은 지난 8월 여자 U-20 대표팀으로 선발돼 콜롬비아에서 열린 2024 FIFA 여자 U-20 월드컵에 출전한 바 있다. 광양여고의 캡틴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른 조혜영은 이번 대회에서 총 9골을 넣어 득점상의 주인공이 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